

국보관

건칠팔부중입상

국보

현재 국보관에 소장된 이 상들은 인도 신화에서 불교로 흡수되어 부처와 그의 가르침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 여덟 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신들은 국가를 수호하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며 나라 시대(710~794년)에 중용된 금광명최승왕경 등 불교의 여러 경전에도 등록되었습니다. 이 신들이 불교 사원의 제단에서 보이는 이유는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위한 것만이 아닌, 중생(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733년부터 734년에 걸쳐 조성된 이 상들은 원래 고후쿠지 절 서금당(西金堂)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서금당은 네 차례의 화재를 겪었지만(1717년의 마지막 화재 이후 재건되지 않음), 팔부중상은 다행히 소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상의 재료에 있는데, 8구 모두가 탈활건칠조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에서는 먼저 점토로 된 원형 틀 위에 옷칠이 배어든 천을 겹겹이 포개어 붙인 후, 옷칠이 굳으면 원형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속이 빈 내부를 가벼운 나무틀로 보강하고 옷칠과 톱밥으로 만든 풀로 이목구비와 세부적인 장식을 마무리한 뒤, 채색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서(상 8구의 무게가 각각 10~15kg)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8구의 상은 현재 아수라, 오부정, 사갈라, 건달바, 긴나라, 구반다, 필바가라, 가루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아수라(전쟁의 신), 데바(신), 나가(뱀 또는 용), 가루다(뱀을 잡아먹는 거대한 새), 야크샤(죽은 자의 영혼), 간다르바(악사 정령), 킨나라(천상의 악사), 마호라가(뱀의 영혼)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들의 독특한 점은 아수라, 오부정, 사갈라, 건달바가 어린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상의 조성을 명한 고묘 황후(701~760년)(고후쿠지 절을 창건한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딸)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더해지기도 합니다.